조선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

-일지를 보고-

2025년

차 례

머리말 3

1. 충성의 일지 4

1) 충성의 가정일지 5
2) 명예관리원일지 7
3) 충성의 기록장 8
4) 우리 가정 충성의 일지 9
6) 사적기대관리일지 11

2 봉사일지 13

1) 로병우대봉사일지 13
2) 교원우대봉사일지 14
3) 이동봉사일지 16
4) 주문봉사일지 18
5) 우선봉사세대일지 19
6) 젖제품공급일지 21

3. 교수교양일지 24

1) 나의 교수교양일지 24
2) 나의 교양일지 25
3)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일지 27
4) 과학기술학습과제총화일지 28

4. 로동일지 31

1) 연구일지 31
2) 운전일지 34
3) 설계일지 35
4) 치료일지 37
5) 훈련일지 38

6) 보물산관리일지 41

5. 원군일지, 서로돕기일지 44

1) 원군일지 44

(1) 나의 원군일지 44

(2) 가정원군일지 46

(3) 전쟁로병가정방문일지 48

2) 서로돕기일지 50

(1) 가정방문일지 50

(2) 종업원생활료해일지 52

(3) 우리 작업반 자랑일지 54

(4) 우리 인민반일지 55

머 리 말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사회의 뿌리이다.

나라의 면모와 기강, 사회의 기풍과 발전전망은 그 나라 인민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보면 잘 알수 있다.

인민들의 사상정신상태,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영예를 찾는가 하는것은 곧 해당 나라의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여있다.

나라를 위해 늘 사색하고 실천하는데서, 집단과 사회, 동지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민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펼쳐진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아래 교양육성된 조선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억센 기상에도 비껴있고 나라의 고귀한 창조물들과 사업성과에도 깃들어있으며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의 구석구석에 슴배여있을뿐 아니라 그들이 리용하는 일지들에도 력력히 어리여있다.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은 일지들에 당에서 바라고 의도하는것과 나라에서 관심하는것을 자신의 일감으로, 사람들의 고충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안고 충성하고 애국을 하며 덕과 정을 다하던 나날들을 기록하고있다.

그들의 깨끗한 량심과 참된 삶을 통하여 세계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잘 알게 될것이다.

1. 충성의 일지

사회주의조선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뜻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며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려는 깨끗하고 참된 지성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인민처럼 부서져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과 같이 순결하고 불에 타도 곧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와 같이 굳세며 흰눈에 묻혀도 푸름을 간직하는 소나무와 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기 수령에게 충성하는 인민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수령은 조국이고 운명이며 삶의 전부이다.

인민들에게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빛내여주시며 참다운 인간으로 키워주시는 생의 은인, 꺼질세라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꿈도 소원도 다 헤아려 아름답게 꽃피워주시며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어버이가 바로 수령이다.

생의 은인이시고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신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따르는것은 조선혁명특유의 전통이며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영예로, 영광으로 된다.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수령에 대한 순결무구한 충성심을 충성의 일지를 리용하는 몇사람의 소행을 통하여 보여준다.

1) 충성의 가정일지

평안북도 신의주시 연대봉혁명사적지 관리원의 집에는 그가 어머니와 함께 리용하는 충성의 가정일지가 있다.

그들이 충성의 가정일지를 리용하게 된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연이 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안북도 신의주시교외 연대봉마루에 오르시여 신의주시내와 국경연선일대를 부감하시며 도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신의주시의 어느 한 기관의 성원들이 연대봉으로 숨가쁘게 올랐다.

주변마을 농장원들이 염소방목을 하거나 집짐승먹이풀을 마련하기 위해 이따금 오를뿐 사람들의 발길이 별로 닿지 않아 돌부리 사납고 잡초들이 무성한 길이였다.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뚫고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길이 변변치 못하고 나무그늘 하나 없는 험한 산봉우리에 모셨댔다는것을 알면 온 나라 인민들이 또 얼마나 마음아파하랴 하는 생각에 그들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때는 고난의 행군시기여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곤난도 많았지만 기관의 모든 일군들과 성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연대봉으로 오르는 새 도로를 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흰눈덮인 겨울날에 오시면 어쩌랴 하는 생각으로 굽이마다 모래무지와 소금함도 준비해놓았으며 연대봉정점에는 국경관문도시를 한눈에 부감할수 있는 전망대도 번듯하게 건설하고 현지지도사적비도 세웠다.

연대봉혁명사적지가 꾸려지자 그 관리를 스스로 맡아나선 한 녀성이 있었다. 연대봉기슭에 아담한 단층집을 짓고 살며 혁명사적지를 정성껏 관리하는 녀성의 이름은 송순복이다.

연대봉에 새 도로를 내고 옹벽공사를 한 후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들은 그는 그 일을 자기가 하기로 결심하였다.

송순복녀성은 중병에 걸려 죽을번하다가 의료일군들의 정성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녀성이였다.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마운 은덕에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가 하고 늘 마음을 써오던 그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린 연대봉의 푸른 숲을 가꾸는 일이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로 생각되였다.

송순복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연대봉의 편제없는 관리원이 되였다.

연대봉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면 자기의 인사도 전해달라던 남편의 유언까지 받은 그는 연대봉에서 살다싶이하며 사적지의 꽃과 나무를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가꾸었다.

어머니의 뜻대로 오늘은 그의 딸이 연대봉혁명사적지 관리원으로 되였다.

그들은 충성의 가정일지를 만들어놓고 매일매일 순결한 량심의 기록을 해가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대봉혁명사적지를 관리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력사의 봉우리에 그들이 심고 가꾼 나무들만 해도 무려 2만여그루에 달한다.

2) 명예관리원일지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구역에 사는 리길영로인은 함흥혁명사적지 명예관리원으로 일하고있다. 그에게는 오랜 세월 리용하고있는 명예관리원일지가 있다.

명예관리원일지에는 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아름다운 꽃향기속에 모시기 위해 바친 사색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다.

그는 년로한 몸에도 회령시를 찾아가 백살구나무모들을 떠다가 함흥시 동흥산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주변에 심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주변에는 회령백살구꽃향기 넘치게 되였다.

그는 10여개의 꽃밭을 스스로 맡아 관리하면서 해마다 정성껏 가꾼 꽃포기들에서 꽃씨를 채취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에 보내주고있다.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에 정성담아 마련한 알알이 영근 꽃씨들을 보내주는 과정에 그는 《꽃할머니》라 불리우게 되였고 수많은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초소의 병사들과 류다른 인연을 맺게 되였다.

어느한 섬방어대의 군관은 할머니에게 보내온 편지에서 백옥같이 깨끗한 마음이 슴배여있는 꽃씨를 심어가꾼 꽃들이 초소에 한껏 향기를 풍길 때마다 후방인민들의 따뜻한 정을 가슴마다에 느낀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신 동흥산언덕에 피여나는 꽃포기들에서 받아낸 씨앗이 여기에 뿌리내리게 해주어 정말 고맙다고 썼다. 그러면서 초소의 병사들은 그 꽃송이들을 보면서 성스러운 수령결사옹위의 맹세를 가다듬는다고 격정을 피력하였다.

《꽃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함흥시만이 아닌 온 나라로 전해지고있는 이야기, 그의 순결하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그의 명예관리원일지가 다 말해준다.

그는 어떻게 되여 이런 훌륭한 일을 시작하게 되였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궂은 길, 험한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꽃향기속에 모시고싶어 봄이면 갖가지 꽃씨를 뿌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활짝 피워왔다고 말하군 한다.

3) 충성의 기록장

조선인민은 나라의 여러곳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실 한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매일이다싶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며 동상주변관리사업에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은 나라의 어디에나 수없이 많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리광수동무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그에게는 14권에 달하는 충성의 기록장이 있다.

그는 대학시절에도, 교단에 섰을 때에도, 두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후에도 40여년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순결한 충성의 마음을 바쳐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면 선참으로 야간지원돌격대에 탄원하여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온 그는 제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장수산언덕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단 하루라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뵈옵지 못하면 생활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는것같아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여겨오는 리광수동무였다.

그의 충성의 기록장들에는 《정말 뵙고싶습니다》, 《나의 사업목표를 두고》, 《억척불변의 초석이 되리》 등의 제목으로 된 기록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다해 받드는 초석으로 살려는 한 인간의 불같은 삶의 지향이 이 한권한권의 기록장들에 그대로 어려있었다.

초석은 보이지 않지만 기둥을 떠받든다. 리광수동무와 같이 자기를 드러냄이 없이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수령을 받들고 당과 혁명을 억척으로 사수하며 조국을 무궁토록 굳건히 받드는 참인간들은 조선의 그 어디에나 있다.

4) 우리 가정 충성의 일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살고있는 박성광학생의 가정에 우리 가정 충성의 일지가 생겨나게 된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박성광학생이 신흥소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날이였다. 동무의 집에 놀러 갔던 성광이가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어머니인 김송희동무에게 우리 집엔 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없는가고 물었다.

자식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한순간 당황하였던 김송희동무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만이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수 있는데 우리 집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김송희동무는 동무네 집에 모신 기념사진을 부러워하던 아들이 기특하게 생각될수록 자식앞에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는 가정교육에서 어머니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되새겨보았다.

다음날 김송희동무는 가정의 하루일과를 상매산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는 일로부터 시작하게 하자는 자기의 생각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가정 충성의 일지가 생겨났다.

그때부터 박성광학생은 부모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조국을 떠메고나갈 기둥감이 될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것으로부터 하루일과를 시작하였고 그가 한 좋은 일은 우리 가정 충성의 일지에 꼭꼭 기록되였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 김송희동무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어린 성광이가 충성의 마음을 지니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진행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었다.

아들과 함께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과 사리원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백옥같은 충성의 마음을 바치였다. 뿐만아니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과 북부철길개건보수장을 비롯하여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고조격전장들에 지성어린 물자들을 보내였으며 원군도 하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걷는 충성의 길에서 성광이는 몰라보게 성장했다.

조선에서는 새 세대들이 부모의 뒤를 이어 수령과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보답의 마음을 간직하며 나라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6) 사적기대관리일지

평양방직기계공장 로동계급은 사적기대관리일지를 만들어놓고 리용하고있다.

공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적이 깃든 26호선반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던 시기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생산실습의 나날을 보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6호선반을 맡아 알뜰히 관리하시였으며 그 기술적성능에 정통하시고 능숙하게 다루시였다.

그 나날에 이런 혁명일화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설비점검의 날에 한 처녀가 맡은 형삭반에 기름을 치고있는것을 보게 되시였다.

한창 기대에 기름을 치고있는 나어린 기대공처녀의 알뜰한 일솜씨를 치하하시며 그의 일손을 도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왜 턱물개손잡이가 잘 돌아가지 않는가고 하시며 기대공처녀에게 기계의 기름구멍이 몇개인지 아는가고 또 물으시였다. 턱물개손잡이축의 한곳을 가리키시면서 이것도 기름구멍일것이라고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수 나무꼬챙이로 기름구멍에 쌓인 때를 한풀한풀 벗겨주시였으며 로동자들이 기대에 정통하고 그것을 알뜰히 관리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실습의 나날에 가공과정에 나오는 꽁다리소재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두었다가 써야 한다고 하시며 친히 절약함을 만들어 현장의 곳곳에 놓아주도록 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충성의 마음으로 매일 기대를 알뜰히 관리하고 사적기대관리일지에 기대관리정형을 기록하군 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교체되며 기대를 맡은 기능공들이 바뀌여져도 사적기대관리일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고

그이의 령도업적을 영원히 빛내여가려는 로동계급의 변함없는 순결한 마음이 꼭꼭 기록되고있다.

… … …

이뿐만이 아니다. 조선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어엿하게 성장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삶의 자욱을 수놓아가고있는 학생소년들과 인민들의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가정의 집뜨락에 양묘장을 꾸리고 그 관리를 알심있게 하여 해마다 수백그루의 나무모들과 수백kg의 백도라지씨, 1만여그루의 꽃뿌리를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준 소년단원들과 녀맹원들, 수년간 동해의 바다가에서 수십t의 조약돌을 수집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정히 깔아놓은 로인을 비롯하여 수십, 수년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충성의 한길을 가고가는 사람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세상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고 이야기의 끝이 있기마련이다.

그러나 충성의 길을 가고가는 조선인민에 대한 이야기는 그 끝이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다.

2 봉사일지

봉사는 인민을 받들어섬기는것이다.

사회주의조선에서 봉사일군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며 심부름군이다.

그들은 언제나 헌신적복무로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인민의 충복으로 살며 일하는 봉사일군들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쟁로병, 영예군인들과 교원들을 위해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는 참된 일군들이 수없이 많다.

여러 봉사일지를 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바친 사람들,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위하여 남달리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친절히 보살피며 편의를 적극 도모해주는 참인간들의 소행을 소개한다.

1) 로병우대봉사일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늘 가르쳐주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받들어 전국의 많은 단위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전쟁로병들을 우대해주며 적극 돌보아주고있다.

그들중에는 로병우대봉사일지를 갖추어놓고 전쟁로병들을 우대하는 자강도 만포시의 어느한 산골마을상점 봉사자들도 있다.

상점에서는 로병우대봉사일지를 만들어놓고 로병들에 대한 봉사를 성의껏 진행하고있다. 일지에는 로병들의 이름과 집주소, 상점에서 진행하고있는 로병들에 대한 봉사활동정형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상점의 봉사자들은 건군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마다 로병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도 해주고 로병들의 생일이면 잊지 않고 찾아가 축하해주군 하였다. 일이 바빠 로병의 가족들이 상점에 오지 못할 때에는 봉사자들이 집에까지 찾아가 봉사해주었다. 친혈육처럼 로병들을 위해주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가족성원들을 무척 감동시켰다.

이곳 상점에서 로병우대봉사일지를 갖추어놓고 로병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더욱 힘을 넣은것은 2020년부터였다.

2020년 7월 27일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에 접한 경리 박승희동무를 비롯한 시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전승세대들을 고결한 후대관, 혁명관을 지닌 혁명선배들로, 누구나가 다 영원토록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내세우고있는 당의 뜻을 받들자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날 그들은 로병들을 더욱 따뜻이 위해줄 마음을 안고 로병우대봉사일지를 만들어 리용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진정을 안고 로병들을 위한 일감을 하나하나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로병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해준 정형에 대하여 그들은 일지에 적어나갔다. 그 과정에 일지의 부피는 나날이 두터워졌다.

로병우대봉사일지는 이 산골마을상점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로병우대봉사일지와 로병들을 위하는 각이한 일지들에는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적극 위해주려는 고결한 의리심이 비껴있어 누구나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다.

2) 교원우대봉사일지

평안남도 은산군안의 상업편의봉사망들에서는 교원우대봉사일지를 만들어놓고 리용하고있다.

일지들에는 군안의 교원들의 이름, 집주소와 함께 그들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한 정형과 봉사내용들이 기록되여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을 더욱 존엄있고 힘있는 존재로 키워내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으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교육교양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당에서는 교원들을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적혁명가로 내세워주고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해주며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이 전사회적기풍으로 되여가고있다.

군에 세워진 은정원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우대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은정원의 봉사자들은 학교에 나가 교원들을 위해 봉사하기도 하고 찾아오는 교원들에 대한 우선봉사를 진행하기도 하며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

그뿐이 아니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조치들이 취해진 이후 교원들에 대한 봉사자들의 관심과 열의는 더 높아졌다.

어느 단위에서나, 누구나 교원들의 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해주기 위한 일거리들을 찾아하고있다. 교원들에 대한 우선봉사, 우대기풍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는 속에 교원상점을 비롯하여 군안의 상업망들에서는 명절과 기념일을 비롯한 계기들에 교원들에게 기념품도 성의껏 마련하여 안겨주고있다.

교원들에 대한 봉사와 함께 그들을 위해 발휘되고있는 아름다운 소행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군안의 상업편의봉사망들에 있는 교원우대봉사일지들에 기록되고있다.

군안의 교원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늘 관심하며 부족한것이 있을세라 마음쓰는 봉사자들의 모습들에서 자신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절감하며 교육사업에 헌신하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두터워지는 교원우대봉사일지에는 교원들을 우대하고 적극 내세워줄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가려는 봉사자들의 뜨거운 마음과 후대교육을 중시하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정신과 기풍이 어려있다.

오늘날 교원우대봉사일지를 리용하는 상업편의봉사단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3) 이동봉사일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증견자들이며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전쟁로병들과 함께 영예군인들의 위훈을 잊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고 성심성의로 위해주기 위해 함흥시 흥덕구역에 있는 은덕원에서는 이동봉사일지를 리용하고있다.

이동봉사일지가 생겨나기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

함흥시 흥덕구역 은덕원의 일군으로 사업하게 된 허금옥동무는 은덕원의 당원들이 명절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무료봉사를 진행하고있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의 소행에 뭉클 감동된 그는 그 좋은 미풍을 적극 살려나갈 생각으로 당초급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당초급일군들과 마주앉은 그는 전쟁로병들을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자로 내세우시며 아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데서 대중봉사기지인 우리 은덕원이 앞장서나가자고, 명절만이 아니라 1년내내 무료봉사를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세포비서 한광일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정말 좋은 안이라며 적극 지지해나섰다.

당초급일군들은 단위의 물질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는 한편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함께 오는 가족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봉사하도록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하였다. 그들은 종업원 누구나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린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친혈육의 뜨거운 정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는데 품을 들였다.

일군들은 모범적인 종업원들을 적극 소개하면서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였다.

언제인가 은덕원에 자주 오던 한 전쟁로병을 만나본지 오래되였다는 생각이 든 허금옥동무는 리발실에 들려 알아보았다. 전쟁로병이 앓는다는것이였다.

자책이 컸다. 서둘러 다른 일군과 함께 전쟁로병의 집을 찾았다.

침상에 누워서도 우리 딸들이 왔다고 반겨맞아주는 전쟁로병을 대할 면목이 없었다. 찾아오는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친절하게 맞아 봉사를 하는것으로 만족해온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봉사해주기로 마음먹고 이동봉사일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구역안의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명단을 놓고 작업반장들과 함께 리발사, 미용사별로 봉사분담안을 작성하였다.

하루일을 끝내고는 집으로가 아니라 담당한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찾아가 이동봉사를 하는것이 종업원들의 고정일과로 되였으며 친혈육이 되여 생활을 보살펴주는것이 기풍으로 되였다. 보다 중요한것은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전승세대의 모습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영웅들의 군상으로, 친할아버지, 아버지로 소중히 새겨진것이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래일이 있을수 없다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4) 주문봉사일지

평양시 강동군직매점의 봉사자들은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편의를 위해 주문봉사일지를 갖추어놓고 리용하고있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군직매점의 일군으로 사업하게 된 라정희동무는 먼저 군직매점과 그 아래분점들을 돌아보았다.

군직매점과 그 아래분점들을 다 돌아본 그는 어떻게 하면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더 잘 받들어나가겠는가 하는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였다.

그는 1차소비품을 비롯한 상품들을 더 많이 구입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리라 결심하였다.

직매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군의 공장, 기업소, 가내생산협동조합들에 나가 소비품생산을 늘이도록 정치사업을 벌리였다. 그리고 상품확보를 위해 뛰고 또 뛰였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에서 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었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자주 소비품생산과 관련한 군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해주어 8월3일인민소비품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생산단위들에서 소비품생산을 늘이도록 하였다.

그럴수록 직매점의 일군들은 여러 단위 일군들과 생산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소비품들이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함께 토론하였다.

결과 직매점에서는 종전보다 많은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을 갖추어놓고 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문봉사일지를 만들어놓고 봉사활동을 개선해나갔다.

주민들의 수요는 각이하였다. 그 나날 판매원들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여러 단위들에 나가 다종다양한 상품들을 마련해왔다.

비록 큰것은 아니였지만 그 하나하나의 소비품마다에는 여러 단위의 생산자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함께 이곳 종업원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라정희동무는 분점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 분점들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더 잘 도모하도록 하였다.

직매점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를 계기로 군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만들도록 적극 추동하는것과 함께 상품확보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결과 소비품의 가지수가 계속 늘어났다. 가죽방석, 신발깔개, 채반 등 여러가지 맵시있고 쓸모있는 소비품들이 많은것으로 하여 주민들이 직매점과 분점들을 즐겨찾고있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군주민들의 생활향상과 편의를 위한 보람찬 길에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수놓아가고있다.

5) 우선봉사세대일지

평양시 어느한 구역의 편의봉사사업소에서는 우선봉사세대일지를 갖추고 봉사활동을 성실히 진행하였다.

사업소의 초급당비서동무는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늘 명심하고 일하였다.

언제인가 초급당비서동무는 당조직앞으로 한 특류영예군인이 보내온 편지를 받게 되였다.

자기의 안해가 이동리발을 청하려고 리발소에 갔을 때 한 리발사가 그 바쁜 속에서도 자진하여 자기 집에까지 찾아와 친절히 봉사해주었는데 그를 높이 평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감사편지였다.

초급당일군은 그 편지를 몇번이나 읽어보았다.

읽어보면 볼수록 생각은 깊어만졌다.

스쳐지날수도 있는 하나의 문구가 그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것이다. 남편의 시중을 드느라 언제나 일손이 바쁠 영예군인의 안해가 리발소에 찾아올 때까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에게는 이 편지가 단순히 감사편지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인민의 말없는 요구가 실린 하나의 청원편지였다.

즉시 초급당비서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마주앉았다.

이 문제를 놓고 경리 조영옥동무 역시 자책되는바가 컸다.

구역안의 전쟁로병들과 특류영예군인들에 대한 우선봉사를 진행해온다고는 하였지만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받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으로 해오지 못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 하나의 계기를 통하여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우선 봉사대상을 지난 시기와 달리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뿐만이 아니라 구역안의 제대군관들과 과학자, 연구사, 교원들에 이르기까지 그 폭을 부쩍 넓혔다.

또한 봉사를 명절, 기념일계기때에만 진행하던 관례를 깨고 일년열두달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단계별봉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계기와 정황에 따라 초청봉사도 진행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소의 모든 작업반별, 봉사망별로 우선봉사세대일지들이 새롭게 갖추어지게 되였으며 봉사활동이 진정한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정확히, 철저히 진행되게 되였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속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그들속으로 들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인민들의 호평을 자아내는, 새로 개건된 은덕원과 목욕탕, 편리하고 산뜻하게 꾸려진 봉사기지들과 친절한 봉사원들의 모습마다에는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실현을 위해 분발해나선 이곳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6) 젖제품공급일지

자강도 만포시 만포탁아소의 보육원인 김순희동무는 어느날 로동신문사에 글을 보내왔다.

그는 당의 은정이 어린 젖제품을 매일 아이들에게 공급한 정형을 기록해두는 젖제품공급일지를 번지느라면 후대들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않는 당의 사랑이 가슴에 미쳐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군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썼다.

…

젖제품공급일지에는 매 아이에 따르는 젖제품공급량이며 공급날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여있고 매일매일 젖제품을 공급했다는 보육원의 수표도 씌여있다. 보육원들은 혹 집에서 앓고있는 어린이들에게까지 우유를 공급해주고서야 공급일지에 자기의 수표를 하군 한다.

어린이들에 대한 젖제품공급은 휴식일, 명절날에도 변함이 없다, 아이들에게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것을 두고 보육원들과 부모들은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당과 국가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나라는 없다.

젖제품공급일지를 펼칠 때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

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강조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에 의하여 도시와 산골마을, 섬마을 할것없이 그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행복동이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어머니에게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때가 한 시절이지만 우리 보육원들에게는 그것이 교대없는 한생의 직업이다.

하지만 날마다 더욱 뜨겁게 베풀어지는 우리 당의 사랑속에 어린이들을 키워가는 이런 보람, 이런 긍지를 어디에 가서 또 찾겠는가.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사로운 어버이사랑에는 정녕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은 없다. …

그의 글은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젖제품공급일지는 하많은 사연을 전해주고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낳는다.

젖제품공급일지리용과정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한 어린이를 위하여 젖제품을 실은 차가 달려오고 탁아소에 다닐 때처럼 매일매일 젖제품을 먹으며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할 때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기간에 먹을수 있는 젖가루까지 공급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탁아소, 유치원, 리(읍, 구, 동)사무소들에는 젖제품공급일지가, 시, 군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들에는 젖제품공급카드발급대장이 갖추어지고 모든 탁아유치원년령기 어린이들에게 젖제품공급카드가 발급되는 등 단 한명의 어린이도 공급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이 세워졌다.

리(읍, 구, 동)사무소들에는 탁아유치원에 나가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한 젖제품공급실들이 위생학적으로 꾸려지고 나라의 곳곳에 젖생산 및 가공기지들이 그쯘히 새로 더 꾸려지게 되였다.

젖제품공급일지는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공급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이 어린 젖제품을 매일 아이들에게 공급한 정형을 기록해두는 사랑의 일지이다.

이 일지를 번지느라면 후대들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 당의 사랑이 마음에 미쳐와 누구나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군 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조선에서처럼 당과 정부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나라는 없다.

어린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과 열화같은 사랑에 의하여 도시와 산골마을, 섬마을 할것없이 그 어디서나 어린이들이 매일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며 튼튼하게 자라나고있다.

매 어린이들에 대한 젖제품공급일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사로운 어버이사랑이 흐르는 조선특유의 모습을 비껴담은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일지이다.

3. 교수교양일지

교수교양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후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는 교육사업을 민족의 흥망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보시고 언제나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새 세대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들로 키우며 인민들이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고 일생동안 배울수 있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신다. 학생들을 주체조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키우시기 위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고 평범한 근로자들도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한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될수 있도록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 과정에 조국의 미래를 위해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자기의 힘과 열정, 지혜를 깡그리 바쳐가는 교원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교수교양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나가는데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는 일군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가 담긴 일지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1) 나의 교수교양일지

평성교원대학부속 평성시 덕성소학교에서는 교원들모두가 나의 교수교양일지를 지참하고 리용하고있다.

교원들이 나의 교수교양일지를 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원들의 자질이 현저히 향상되게 되였다. 학교에서 2021년 10대최우수교원이 배출되였고 본보기수업들과 우수한 교수방법들이 창조되여 전국에 일반화되였다. 학생실력에서도 전국적으로 앞선 단위의 하나로 되게 되였다.

이것은 학교일군들의 깊은 사색과 책임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것이다.

학교일군들은 학교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를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교원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였다.

교원자질을 높여주는데는 교수참관, 교육경험토론회 등 여러 계기가 있었다. 교원들의 자질은 한두해사이에 높아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런 계기들을 정상적으로 적극 마련하고 잘 활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도였다.

학교에서는 교수참관과 교육경험토론회를 적극 진행하였다.

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교수교양일지를 지참하고 일지에 매일 교수사업정형을 자체로 총화하면서 찾은 경험과 교훈을 적어넣고 참고하였다. 학교일군들은 주마다 이 교수교양일지에 기록된 매 교원이 찾은 경험을 학교적으로 일반화하고 누구나 교훈을 새기도록 하였다. 교원들속에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과 나타난 교훈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교원들의 자질은 눈에 뜨이게 높아지게 되였고 교원들속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었다.

학교일군들은 자질향상을 위한 교원들의 경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면서 우수한 교원들의 보여주기수업, 분과별교수경연 등 여러가지 방법을 배합해나갔다.

이 과정에 얻은 경험과 성과들은 나의 교수교양일지에 정확히 기록되고 교원들이 옳은 방법론을 탐구적용하는 과정에 교원들의 자질은 눈에 뜨이게 향상되였으며 학생실력도 현저히 높아지게 되였다.

2) 나의 교양일지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교원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2019년 9월 3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서는 나의 교양일지를 운영한 경험에 대한 평양중등학원 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그는 토론에서 그 누구보다 육친의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을 주고 그들의 심리에 맞게 교육교양하기 위하여 학원에서는 나의 교양일지를 만들어 운영하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나의 교양일지에 학생들의 건강상태, 취미와 습관, 포부와 희망 등을 상세히 적어놓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조선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과 동무들이 한가정, 한식솔이나 같다. 그들은 부모, 형제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따스한 정과 사랑을 선생님들과 동무들을 통해 느끼며 자라는것이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하나로 결합시켜야 하는 학원의 특성에 맞게 원아들의 심리를 환히 꿰들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게 하는데서 교양일지가 큰 은을 나타냈다.

언제인가 학원의 교육자들은 몇몇 원아들이 총잡은 병사가 되고싶어 체력단련에 힘을 넣는것을 보게 되였다. 이것을 스쳐지나지 않고 학원에서는 일지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즉시에 해당 부문 일군들과 전문가들과의 련계밑에 필요한 대책을 세웠다.

학원의 교직원들은 원아들의 희망과 포부를 알고 그것을 꽃피워주기 위해 어머니의 심정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나갔다.

최근년간 학원에서 7.15최우등상수상자대렬이 늘어나고 상급학교입학생수가 많아지는 등 좋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나의 교양일지를 운영하며 원아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양방법을 꾸준히 탐구하고 적용해온 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평양중등학원 원장의 나의 교양일지운영에 대한 토론은 대회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3)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일지

조선에서 교육사업은 학교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다. 근로자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그들을 참다운 인재로,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수교양사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일지를 통해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여 생산에서 성과를 내고있는 류경버섯공장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공장이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토대 즉 자체의 기술력량이 마련되여야 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설비들과 충분한 원료가 준비되였다고 하더라도 버섯생산의 담당자인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따라서지 못하면 성과를 담보할수 없었다. 더우기 공장에 신입공들이 늘어나고있는 현 실태는 종업원들에 대한 기술학습지도를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원격교육체계에 종업원들을 대담하게 더 망라시키는 한편 과학기술보급실운영시간과 운영내용, 제기된 문제와 대책정형 등을 기록하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일지를 정상적으로 리용하여 종업원들에게 선진과학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일지를 리용하면서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는 종업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였으며 보급실운영이 보다 실속있게 진행되게 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이 실속있게 진행되는 과정에 종업원들속에서 실력을 높이기 위한 열의가 높아지고 꾸준한 노력으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한 인재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배운 지식을 생산실천에 적극 활용하게 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누구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는데 떨쳐나서도록 이끌었다.

그 과정에 공장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흰곤봉버섯을 생산하고 나오는 페기질을 2차, 3차 리용하게 됨으로써 기본원료를 적게 쓰면서도 버섯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또한 자체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영양제를 만들어 버섯생산에 리용하고 대용기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였다.

공장에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일지리용으로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한것으로 하여 단위발전이 확고히 담보되고 공장의 버섯생산전망도 대단히 좋게 되였다.

4) 과학기술학습과제총화일지

평양껌공장에서는 과학기술학습과제총화일지를 실속있게 리용하여 근로자들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워낸 결과 최근년간 비약적발전을 이룩하였다.

공장의 비약적발전의 요인은 여러가지로 분석해볼수 있으나 그 요인들중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공장의 일군들이 인재육성에 품을 많이 들인것이다. 현재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대학졸업생이거나 대학교육을 받고있다.

과학기술중시를 가사처럼 여기고 모든 종업원들을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로,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는것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의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나가는 과정에 일군들은 본받을만한 좋은 경험들을 창조하였다.

우선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제한된 몇명이 아니라 전체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데 사업을 지향시키였다.

일군들은 모든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그들이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종업원들도 여러 대학들의 박사원에서 공부하면서

최신과학기술을 부단히 습득하도록 하였다.

사실 현행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하면서 종업원들을 대학공부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군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업원들을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 생산작업반 로동자들뿐 아니라 공무작업반 용접공이나 전공까지도 례외없이 원격교육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키였다.

또한 인재육성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갔다.

과학기술학습과제총화일지리용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일군들은 몇몇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는것을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지식경제시대의 필수적인 요구로 간주하지 못하고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참신한 방법론을 탐구하였다. 이렇게 되여 나온것이 과학기술학습과제총화일지이다. 과학기술학습과제총화일지의 하나하나의 항목들에는 공장일군들의 깊은 사색이 깃들어있다.

일지에는 다음달 희망하는 과제란이 있다. 종업원들에게 기존지식을 전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지적잠재력을 최대로 계발시키며 목적지향성있게 학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한 란이다.

학습제목란의 내용은 매 종업원들에 한하여 서로 다르다. 일군들은 본인의 희망과 학력, 나이, 직종, 준비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학습과제를 주도록 하였다. 매 종업원들의 학습과제는 매달 일군들이 심중히 토의하여 설정하였다.

일군들은 학습과제수행에 대한 평가 및 총화사업도 엄격히 하면서 종업원들이 서로 배우고 배워주면서 과학기술의 세계, 문명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사실 과학기술보급원이나 몇명의 기술일군들이 각이한 수준의 많은 종업원들을 다 배워준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일군들은 학습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기풍을 확립하는것을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실력을 빨리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보았다. 이렇게

되여 과학기술학습과제총화일지에는 방조자란이 추가되게 되였다.

방조자란에 처음에는 주로 주간대학졸업생들의 이름이 올랐었다. 그런데 차츰 평범한 로동자들의 이름도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배우고 배워주는 사람이 따로 없음을 보여준다. 한걸음 앞선 사람이 한걸음 이끌어주고 두걸음 앞서면 또 두걸음 따라세워주며 너도나도 어깨나란히 배움의 주로를 달리고있는것이다.

일군들은 학습방조에서 모범적인 종업원들을 여러 계기들에 내세워주고 매달 학습정형총화때 추가점수를 주어 평가를 정확히 해주었다. 집단주의정신이 발휘되는 속에 학습열풍은 더욱 고조되고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실력은 한층 높아지게 되였다.

종업원들 누구나 맡은 일을 끝내면 약속이나 한듯 과학기술보급실로 달려온다. 서고에서 필요한 도서들을 찾아 열람하고 배운 내용을 공고히 다지면서 다음달 학습할 과제를 스스로 연구하고있다. 그 나날에 공장에서는 수십건의 발명 및 창의고안이 나오게 되였다.

4. 로동일지

모든 재부는 로동의 산물이다. 로동이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사회적부의 창조와 인민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

로동의 열매가 전체 인민의것으로 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로 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일하고있다.

한 직종에서 수십년 지어 일생 일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나라와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여 로력영웅의 영예,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근로자들도 많다.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잡은것은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이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되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이다.

자신보다 먼저 나라와 인민, 사회와 집단을 생각하며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몇가지 일지를 통하여 펼쳐보인다.

1) 연구일지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촉매화학연구소 연구사였던 인민과학자 박사 부교수 원백동무에게는 부피두툼한 연구일지가 있었다.

연구일지에는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위해 바친 그의 값높은 한생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었다.

원백동무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받들어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촉매연구를

시작한것은 1980년대초이다.

얼마후 촉매화학연구소에서는 촉매연구와 관련한 토의가 진지하게 벌어졌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에 속하는 촉매생산기술을 화학공업의 력사가 오래지 않은 조선에서 자체로 개발할수 있겠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촉매연구는 기술적난도가 매우 높고 폭발위험성이 큰것으로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서로 다른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생각에 잠겼던 원백동무가 일어서자신은 한몸을 다 바쳐서라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우겠다고, 그를 위해 10년, 20년 아니 한생을 깡그리 바친다고 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여 촉매화학연구소에서는 39살의 원백동무가 속한 연구집단이 무어지게 되였다.

원백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촉매연구를 철저히 주체식으로 할 의지를 가다듬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대한 기술문헌들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끊임없이 계속하였다.

실험은 항시적인 폭발위험성을 안고있었지만 원백동무는 주저하지 않았다. 어려운 실험과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는 솔선 맡아나서군 하였다.

불에 머리칼이 그슬리고 솜옷에 구멍이 숭숭 나고 부상을 당하면서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학자들에게 주신 과업을 관철할 오직 한 생각만 하였다.

탐구의 길은 자기 한목숨을 서슴없이 내대야 하는 결사의 순간순간의 련속이였다.

1996년 8월 그의 연구집단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촉매를 개발하고 공업화를 실현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 위대한 장군님께서 화학연구부문앞에 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을 때 일흔살이 가까와오던 원백동무는 첨단연구과제를 또다시 맡아안았다.

교수학직도 마다하고 수도 평양을 떠나 생산현장에 내려온 그는 완성 또 완성이라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촉매생산에 들어가는 10여가지나 되는 시약들의 순도를 99.9% 지어 100%까지 올리기 위해 밤마다 현장의 실험탁을 마주한채로 새날을 맞았고 때로는 로동자들과 함께 정류탑우에서 쪽잠에 들기도 하며 고심분투하였다. 수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그는 연구를 성공시키였으며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러던 어느날 심한 아픔으로 평양에 올라와 자식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던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뜻밖의 선고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늘 손에 들고다니며 매일매일의 기록을 남긴 연구일지를 한장두장 번지였다.

그러던 그의 눈길이 2016년 5월 8일이라고 쓴 날자에 가멎었다. 그 옆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화학공업부문에서 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주체비료와 비날론, 기초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하신 말씀이 적혀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그의 심장이 세차게 높뛰기 시작하였다.

평양에 남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안해와 자식들의 간절한 청에도 아랑곳없이 그는 다시 대규모화학공업기지로 떠났다.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촉매의 국산화를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그는 수령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가르치고 근로하는 인민의 심장에 가정보다 나라를 더 귀중히 여긴 참된 과학자의 모습을 남긴 인민의 과학자였다.

원백동무뿐이 아니다. 조선에는 당의 호소, 조국의 요구를 자신의 연구일지에 새기고 첨단에로의 길을 앞장에서 개척하는 과학의 척후병들이 많다. 그들의 충성과 애국의 자욱자욱이 있어 조국의 미래가 그토록 밝

고 인민의 행복이 나날이 커가고있는것이다.

2) 운전일지

화학공업부문의 어느한 련합기업소에는 종업원들 누구나 사랑하는 처녀기대공이 있다.

그가 바로 체소한 몸에 육중한 기대를 능숙하게 다루어가는 한광복동무이며 운전일지의 주인이다.

기대에 언제 기름을 주었으며 가동시간과 보수정형, 설비점검정형 등 기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여있는 운전일지는 처녀기대공의 알뜰한 일솜씨를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한다.

진료소들에 있는 어린이건강관리부를 펼치면 말못하는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환히 알수 있는것처럼 펼치기만 하여도 기대의 상태가 한눈에 안겨오는 운전일지이다.

처음 그가 기대를 맡았을 때 직장종업원들속에서는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린 처녀도 걱정이 없지 않았다.

그때 그의 눈가에 자랑스럽게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대건설장마다에서 청춘시절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처녀혁신자들의 장한 모습들이였다. 그들처럼 청춘시절을 긍지높이 수놓아가고싶었다.

하기에 그는 하루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대에 정통하기 위해 오랜 기능공들을 찾아다니며 운전조작법을 익히느라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이렇게 힘을 키우고 기대를 다루는 과정에 그는 공장이 사랑하는 혁신자, 직장이 자랑하는 기능공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언제인가 기대에서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였다.

운전일지를 펼쳐보니 전날에 여느때보다 많은 시간을 가동하고도 교대를 마치면서 점검과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형이 눈에 띄웠다.

즉시에 원인을 찾고 보수를 진행하였더니 여느때와 다름없이 기대는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또다시 힘을 쓰기 시작했다.

보풀이 인 처녀기대공의 운전일지에는 능숙한 운전조작법을 련마하기 위해 흘린 소중한 땀방울도 진하게 배여있었다.

처녀기대공의 운전일지에는 단순히 기대의 상태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의 사랑과 집단의 믿음에 애국의 더운 피와 땀으로 보답하려는 뜨거운 진정과 열정이 담겨져있었다.

3) 설계일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능력과 잠재력을 초월하며 분투하는 과학자, 설계가들의 량심과 헌신적복무정신은 설계일지에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언제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진행한 어느 한 협의회에 참가하였던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소장동무는 전력문제해결의 명줄이 과학에 걸려있고 바로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것을 더욱 깨달으며 연구과제를 연구소가 떠말을 결심을 내렸다.

평양을 떠나 연구소로 가는 길에서 그의 생각은 여느때없이 깊어졌다.

그날 밤 연구소에서는 소장과 초급당일군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초급당일군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이야말로 소장선생의 좌우명이자 우리 연구소의 기질이라고 하면서 소장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의 운명이 다름아닌 자기들의 연구결과에 달려있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주조연구집단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수력타빈날개용불수강재료가 주체식으로 개발되였다. 전력공업성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속에 이 기술은 어느한 수력발전설비공장에 이전되였다. 그쯘하게 꾸려진 공정에서는 종전에 비하여 수명이 10배이상인 새로운 수력타빈날개가 생산되여나왔다.

개발로부터 생산까지 2년반만에 이룩된 이 성과로 하여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당에 충성의 보고를 드리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였다.

여러 수력발전소에 질좋은 새 수력타빈날개가 도입되기 시작하던 어느날 소장동무는 전력공업부문 일군들로부터 화력타빈날개와 관련한 가슴아픈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되였다.

지난 시기 화력발전소들에서는 화력타빈날개를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최근년간에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반공화국책동의 검은 마수가 여기에까지 뻗치고있다는것이였다.

소장의 가슴속에서는 원쑤들에 대한 분노심과 함께 민족적자존심이 꿈틀거렸다.

과업을 준 사람도, 연구소에 그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운명을 걸고있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앞에 외면하거나 물러설 권리가 없음을 그 시각 그는 뼈저리게 통감하였다.

이렇게 되여 흑색금속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화력타빈날개개발을 위한 개척의 길에 또다시 뛰여들었다.

그들뿐이 아니였다. 대안의 오랜 설계원들은 연구소에서 화력타빈날개를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깊숙이 간수하였던 설계일지들을 내놓고 날개제작과 관련한 많은 조언들을 아낌없이 주었다.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 흑색금속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뿐이 아닌 많은 과학자, 설계원들이 떨쳐나 마침내 수입산보다 더 좋고 제작원가도 훨씬 적은 화력타빈날개의 제작과 시험도입에서 단번성공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한 중요회의에서 국가과학원에서 화력타빈날개를 훌륭히 연구개발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당과 혁명의 요구, 시대와 인민의 부름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결사전을 벌리던 나날에 그들이 리용한 두툼한 설계일지의 무게를 무엇으로 론할수 있겠는가.

이 땅 어디에나 나라의 걱정으로 되고 경제건설의 운명이 걸려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일지, 설계일지들에 애국과 량심을 새겨가는 이야기의 주인공들과 같은 조선로동당의 참된 과학기술전사들이 있어 창조와 변혁, 비약과 혁신은 영원히 조선의 대명사로 될것이다.

4) 치료일지

그 어느 병원에서 일하든 조선의 의료일군들에게는 치료일지가 있다.

치료일지에는 환자들의 소생을 위한 의료일군들의 피타는 탐구와 사색의 흔적, 환자들을 위하여 여러차례 진행한 의사협의회정형과 환자의 몸에 흘러들어간 각종 약물, 현대적인 설비에 의한 치료 등에 대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평안남도종합병원 안과 의료일군들에게는 20여년간 그들이 진행한 현장의료봉사활동정형이 적혀진 치료일지가 있다.

치료일지의 갈피갈피에는 20여년간 환자들을 위해 바친 의료일군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있다.

20여년동안 이곳 의료일군들은 도안의 많은 단위들에 나가 백수십차의 현장의료봉사활동을 벌리였으며 수천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수술치료를 진행하여 광명을 안겨주었다. 그들속에는 오래동안 생활상불편을 느끼고있던 탄광의 굴진공도 있고 선천성눈질병으로 18년동안 앞을 볼수 없었던 한 처녀도 있으며 더는 병을 고칠수 없다고 했던 광산로동자, 아흔살을 바라보는 전쟁로병도 있다.

누가 시켜서 시작한 일이 아니였다.

20여년전 김달영과장이 현장의료봉사활동을 제의해나선것은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욱 힘있게 고무해주고싶은 마음에서였다. 그의 생각을 과의료일군들은 전적으로 지지해나섰다.

이렇게 시작된 현장의료봉사활동이였으나 결코 헐하지 않았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현장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자

니 한사람이 두몫씩 맡아해야 할 때가 많았다.

현장치료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제일 애로를 느낀것은 수술에 필요한 의료품이였다. 환자수가 늘어나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일부 성원들속에서는 우에서 해결받아야지 별수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하지만 과장의 생각은 달랐다. 어느날 그는 과의료일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라의 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저저마다 우에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 알아주고 도와주길 바라며 우리가 이 길에 나섰는가. 자체로 해결방도를 찾아보자.

그의 절절한 목소리는 의료일군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이렇게 되여 과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수술에 필요한 의료품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는 사업과 함께 해당 기술일군을 키우는 사업이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기술전습과 기술학습을 정상화하고 과협의제를 강화하였으며 주에 1차씩 어김없이 선진기술과 관련한 문헌자료들에 대한 연구발표가 진행되였다.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좋은 결실을 가져오고야말았다.

의료일군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진행되여온 이 모든 사업은 치료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한 밑거름이였다.

병원들에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형을 기록하는 일지가 있기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생명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조선로동당의 뜻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가는 보건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이 깃든 치료일지는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5) 훈련일지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위해 맹렬한 훈련의 낮과 밤을 보내는 조선의 체육인들과 감독들에게는 훈련일지가 있다.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이고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김정일**상계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인 리세광선수의 훈련일지도 그중의 하나이다.

리세광선수가 군복을 입고 4.25체육단으로 떠나는 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 군복을 입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조국의 존엄과 영예, 아직은 그 말뜻을 다 리해할수 없었던 나이였지만 그때 그는 자기의 꿈과 포부가 바로 그 군복과 함께 실현될것이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체육단에서의 훈련 첫날부터 그는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훈련을 이악하게 하여 국내경기에서 여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개인종합순위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하군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또래의 선수들보다 3년이나 먼저 어깨우에 별도 달게 되였다.

어느날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적혀있는 훈련일지를 한장한장 번지였다.

훈련일지의 마지막장을 펼치는 그의 마음은 아팠다. 손가락부상으로 그가 보름동안이나 훈련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훈련일지에도 보름동안이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리세광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마침내 군인은 심장이 살아있는 한 자기의 전호를 떠날수 없으며 훈련 또 훈련하여 경기마다에서 공화국기발을 휘날려야 함을 자각하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았다.

온밤을 뜬눈으로 새운 그는 다음날 훈련장에 다시 나섰다.

훈련과정에 그는 부상도 여러번 입었지만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일떠서군 하였다.

리세광선수는 제15차 아시아경기대회 기계체조 조마운동에서 첫 국제경기금메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07년에 진행된 제40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조마운동에서 3등을 하였다.

다른 나라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수치감을 안고있던 리세광선수는 그때 세계와 경쟁하자면 자기가 창조한 동작, 자기식의 난도높은 동작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조국에 돌아온 그는 책임감독과 함께 새로운 난도의 동작을 창조하는데 달라붙었다.

훈련중 부상으로 육체적아픔을 당할 때면 그는 나라의 체조발전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새긴 전세대 체조명수들의 이름과 그들이 력사에 남긴 자취를 되새기군 하였다.

국제체조련맹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독창적인 동작들은 그 동작을 처음으로 수행한 선수의 이름으로 명명하고있는데 조선사람의 이름으로 명명된 체조동작들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철봉운동에서 《리송섭동작》이, 1980년대에는 안마운동에서 《리철헌동작》과 고저평행봉운동에서 《김광숙동작》이, 1990년대에는 고저평행봉운동에서 《박경실동작》이, 2000년대에는 마루운동에서 《리정성동작》이 세계체조계에 등록되였다.

그런데 조마운동에서만은 아직 조선의 동작이 없었다.

리세광선수는 많은 창조의 날과 달을 바쳐 2012년에 진행된 제5차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에서 그 동작을 처음으로 펼쳐보였다. 그는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세계체조계는 법석 끓었다.

리세광선수는 새로운 동작을 창조함으로써 군인으로서 조국앞에 지닌 의무를 지켰고 전세대들이 물려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리하여 2010년대에도 조선의 동작이 세계체조계에 당당히 등록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조마에서 수행하는 두개의 동작을 모두 새 동작, 조선의 동작으로 수행하고싶었다.

매일, 매 순간 훈련장을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장으로 여기고 창조의 결사전에 나선 리세광선수는 새 체조동작들을 창조하는데 7년을 바쳤다.

세계는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리세광선수가 창조한 두개의 새로운 동작을 보게 되였다.

후날 《리세광동작1》과 《리세광동작2》로 명명된 이 체조동작들은 난

도가 가장 높은것으로서 시작달리기로부터 공중에서의 돌기와 착지까지 속도가 빠르면서도 재치있는 련결동작을 배합한 최고급의 기술동작이였다.

그는 다음해에 진행된 제46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2016년에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도 우승하여 10여년동안 그렇게도 바라던 꿈을 이루었다.

조선의 존엄을 걸고 창조한 《리세광동작》들은 이렇게 련이어 금메달을 낳았다.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강자인 조선의 리세광선수는 마침내 3중세계선수권보유자로 세계앞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다.

어머니당에서는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이며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인 리세광선수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와 인민체육인칭호를 안겨주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으로서의 그의 삶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25체육단 리세광선수의 국제경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체육인들이 그의 정신세계와 도덕품성, 훈련기풍을 따라배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령도자와 인민의 자랑으로, 조국의 보배로 된 리세광선수의 깨끗한 량심과 빛나는 생은 그의 훈련일지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6) 보물산관리일지

량강도 김정숙군고려약공장은 비록 크지 않은 단위이지만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하여 군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그 비결을 알고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배인 리광숙동무는 한권의 부피두툼한 일지를 내놓는다.

보풀이 인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리용하여온것이 분명한 보물산관리일지이다.

공장에서는 담당림을 갖가지 약초와 약나무들로 꽉 들어찬 보물산으

로 만들어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일지의 갈피갈피에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오는 나날에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바쳐온 소중한 땀방울이 슴배여있었다.

공장에서 약초산을 조성할것을 결심한것은 2024년으로부터 근 20년전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장에서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약초를 채취하여 고려약생산에 리용하고있었다. 그러다보니 늘 원료가 모자라 애를 먹었다.

당에서는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라고 하였는데 우리도 약초산을 조성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여나가자는 공장일군들의 호소는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약초산을 조성하는 나날에는 애로와 난관도 수없이 많았다. 약초와 약나무들을 산에 정성껏 심었으나 토양조건에 적응하지 못하여 몇차례나 실패를 거듭하군 하였다.

이렇게 되자 어떤 종업원들은 맥을 놓고 주저앉았고 어떤 종업원들은 이전처럼 산에서 절로 자라는 약초를 채취하면 되겠는데 괜히 고생을 사서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때 지배인 리광숙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앞장에서 종업원들을 이끌어나갔다. 그는 종업원들에게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산에 갖가지 약초와 약나무들이 가득찰 래일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는 원료걱정을 모르게 될것이고 나라에 쓸모있는 보물산이 또 하나 늘어날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리광숙동무는 약초들을 산의 토양조건에 적응시키기 위한 시험재배를 꾸준히 밀고나가는 한편 종업원들모두가 과학기술자료들을 탐독하며 약초와 약나무재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였다.

그 나날 산에는 갖가지 약초와 약나무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고 몇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덕을 보기 시작하였다.

10년전 담당림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였을 때에도 그들은 이악하

게 노력하여 짧은 기간안에 약초산을 조성하였다.

산에는 도라지, 삽주, 단너삼, 목향과 같은 약초들과 찔광이나무, 오갈피나무, 단나무와 같은 약나무들이 수십가지로 늘어나게 되였다.

갖가지 약초들과 약용산열매들을 채취하여 연방 실어들이니 공장은 원료걱정을 모르고 생산의 동음을 울리게 되였다. 군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각종 고려약들이 쏟아져나오고 종업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택해졌다.

이 나날 공장은 사회주의애국림칭호도 수여받게 되였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당의 뜻대로 자기 손으로 조국의 산들을 푸르게 하고 쓸모있게 가꾸어 많은 재부를 얻고 많은 덕을 보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의 마음을 보물산관리일지가 다 전해주고있다.

5. 원군일지, 서로돕기일지

주체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시대의 영웅들과 공로자들을 내세워주며 후대들을 사랑하고 동지들을 아끼고 적극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보여주는 일화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미풍이 사회적기풍, 국풍으로 더욱 공고화되여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몇명의 일지리용자들의 소행을 통하여 펼쳐보인다.

1) 원군일지

(1) 나의 원군일지

강원도 원산시 장촌종합상점 일군인 박래옥동무에게는 하루일을 마친후면 늘 펼쳐들군 하는 한권의 책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가 20여년전부터 리용해오는 나의 원군일지이다. 초소의 병사들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감을 놓고 사색을 거듭하는 그에게 있어서 그 일지는 량심의 기록부, 애국의 진가를 검증받는 시험지와도 같다.

원군일지의 첫 페지에는 그가 원군을 결심하던 동기에 대하여 적혀있었다.

1997년 2월 6일에 그와 같은 마을에 사는 한 녀인이 상점에 찾아와 많은 상품들을 요구하였다. 그 많은 물건을 어디에 쓰려는가고 묻는 박래옥동무에게 그 녀인은 건군절을 맞으며 군인들에게 보내줄 원호물자를 마련하려 한다는것이였다. 그 녀인으로 말하면 많은 식솔을 돌보느라 그 누구보다 푼전을 쪼개써야 할 녀성이였다. 박래옥동무가 살림살이에 지장이 가지 않겠는가고 걱정하자 그 녀인은 전쟁시기 남강마을녀성들은 무엇이 남아서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앞장섰는가고 웃으며 말하였다.

박래옥동무는 그 녀성이나 자기나 다같이 군대덕을 입으며 자란 이 땅의 공민들인데 군대를 위하는 마음에서는 왜 이다지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일가하고 생각하였다.

오빠와 동생들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내며 나라의 울바자가 굳건해야 매 가정의 울타리가 든든해진다고 하던 부모의 말도 되새겨보았다.

그는 나날이 커가는 행복에 도취되여 잠시나마 인민군대를 잊고 살았다고 자신을 자책하며 남편과 토론하고 가정에서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박래옥동무의 원군길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길에서 귀중한 조국이 어떻게 지켜지고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며 초소의 병사들을 위하는 그의 진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강렬해졌다.

례년에 없는 폭설이 쏟아져내리던 어느해 겨울 아들과 함께 원호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먼길을 떠났던 그의 앞길에 하천이 막아나섰다. 눈이 두텁게 쌓여 깊이도 얼음두께도 가늠할수 없는 하천이였다. 박래옥동무는 주저없이 걸음을 내짚었다. 혹시 얼음이 꺼지기라도 하면 어쩌는가고 급히 만류하는 아들의 손목을 잡으며 그는 기여서라도 건너가야 한다고, 주춤하면 원군길이 늦어진다고 나직이 말했다.

이렇듯 원군을 삶의 요구로, 어길수 없는 의무로 여기는 박래옥동무였다. 자기는 비록 고생을 하고 부족한것, 어려운것이 많다 해도 병사들의 군무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그였기에 원군의 길에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여주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신병으로 앓을 때에도 병사들을 위한 원군의 길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그 강인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은 소행이라고 감동을 금치 못할 때마다 그는 탄약상자를 머리에 이고 사선을 헤치던 남강마을녀성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뿐이라고 말하군 하였다.

박래옥동무는 오늘도 인민군군인들에게 가정에서 마련한 갖가지 지성어린 원호물자들을 보내주면서 총대로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줄것

을 절절히 당부하고있다.

원군의 길을 걷는 사람들속에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1 000여마리의 돼지를 키워 인민군대에 보내주며 병사들의 어머니로 사는 일흔살이 퍽 넘은 평안북도 피현군의 양금녀녀성도 있고 20년동안 수백마리의 염소를 길러 인민군대에 보내준 평안북도 운산군의 영예군인 김명훈동무도 있다.

원군을 자기자신, 자기 가정의 일로 간주하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원군미풍열성자,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2) 가정원군일지

어느한 도매소의 일군이였던 한영옥동무는 40여년의 나날 조국과 혁명, 동지들을 위해 불같이 살다 조용히 떠나갔다.

그에게 자신의것으로 남은것은 그가 수많은 전쟁로병들, 영예군인들과 혈연의 정을 맺고 그들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눈 가지가지의 사연들을 적으며 애용하던 3편의 장편소설과 맞먹는 두툼한 원군일지뿐이다.

한영옥동무가 원군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것은 그가 26살되던 1978년 9월 18일부터였다.

어린 딸을 업고 집으로 가던 그는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짐을 들고 걸어가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따라가 짐을 받아들었다. 알고보니 그는 대동강구역에 살고있는 조국해방전쟁참가자이며 영예군인이였다. 한영옥동무는 자기도 제대군인이고 군인가족이라고 말하며 그와 반갑게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헤여졌다.

1984년 10월 8일 상점 판매원으로 일하던 그는 한 영예군인을 또 알게 되였다. 필요한 봉사를 해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그는 작업반원들과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한 이동봉사를 하자고 의논하였다. 구역별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이 장악되고 몇명씩 담당하게 되였다. 한영옥동무는 20여명의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자진

하여 담당하였다.

하루봉사를 끝내고 또다시 이동봉사의 길에 나선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봉사자의 의무만으로는 끝까지 갈수 없는 길이였다.

어느날 담당한 특류영예군인의 집을 찾았던 그는 영예군인이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여 누워있으면서도 간호를 해야 할 안해를 자기 몫까지 하라고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일내보낸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는 대동강구역 청류동에 있는 영예군인들이 자체로 생산기지를 꾸리고 원군하고있는것도 목격하게 되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이동봉사의 길에서 그는 조국을 위한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의 세계를 절감하며 인간의 참된 량심을 배웠고 그들처럼 살자는 맹세를 다지게 되였다. 그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혁명동지, 전우가 되였다.

비내리는 깊은 밤에도 휴식일에도 그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찾아 책을 안겨주고 보약도 만들어주었으며 필요한것을 마련해주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바치면서도 그는 만족을 몰랐다. 언제인가 그는 일지에 입당한지 40년이 된다. 나의 당생활 40년을 돌이켜보니 입당할 때 다진 맹세를 바로 지키지 못했다. 고난앞에 마음이 흔들린 때도 있었다. 총적으로 조국을 위해 바친것보다 당은 나에게 더 큰 믿음과 영예를 안겨주었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당원의 의무에 충실하리라고 써넣었다.

나라가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봉사가 어려워지자 그는 돼지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돼지를 기르는 일을 세대주와 아이들까지 도와나섰다.

당의 믿음으로 어느한 도매소를 책임진 일군이 된 다음에도 그는 종일 바쁘게 보내고도 퇴근길에 또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집에 들려 그들의 생활을 돌보군 하였다. 좋은 상품이 하나 생겨도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보약재나 영양식품이 생겨도 그들에게 가져다주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도 찾았다. 만경대고향집, 대성산혁명렬사릉, 국제친선전람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신천계급교양관, 중앙계급교양관, 평천혁명사적지, 서해갑문에 이어 송도원에로 발걸음을 이으며 그들을 고무하고 조국의 숨결을 안겨주었다.

197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영옥동무가 담당하여 도와준 전쟁로병은 50명, 영예군인은 163명이며 가정방문회수 총 1만 2 924회, 그 나날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생일상, 결혼상을 차려준 회수는 600여회에 달한다.

한영옥동무의 진정어린 사랑과 헌신속에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이 건강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더욱 강해졌으며 그 과정에 그들속에서 로력영웅과 시인도 나오고 국가수훈자들도 나왔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한 원군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맡은 단위를 모든 일에서 앞장서는 단위, 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단위로 만들었다.

2016년 12월 충성과 애국의 원군길에서 그처럼 뜨겁게, 박력있게 고동치던 그의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다.

그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종합진료소 구급과에서 조용히 생을 마치였을 때 구급과 간호원은 한영옥동무가 병원에 영예군인들을 업고 안고 늘 땀투성이가 되여 수백번은 왔을것이라고, 그러나 자신의 아픔에 대해 한번도 호소한적이 없었다고 눈물속에 말하였다.

한영옥동무가 생전에 그토록 정을 기울인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한 원군길을 오늘은 그의 세자식이 대를 이어 걷고있다.

(3) 전쟁로병가정방문일지

조선에서는 전쟁로병들을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증견자들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더

없이 존경하며 높이 내세우고있다.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인 전쟁로병들을 존경하고 돌보아주는 사람들속에는 전쟁로병가정방문일지의 주인인 조순희동무도 있다.

어느날 이른새벽 조순희동무는 정주시 남철동에 살고있는 김송례전쟁로병의 집을 자식들과 함께 찾았다.

김송례전쟁로병의 생일이였던것이다.

조순희동무의 아들 석광휘학생이 김송례전쟁로병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아들을 대견스레 바라보던 조순희동무가 딸 미향이와 함께 서둘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얼마후 김송례전쟁로병의 집으로 전화의 포연내가 물씬 풍겨올듯싶은 군복을 입은 전쟁로병들이 들어섰다. 조순희동무가 성의껏 준비한 생일상을 바라보는 전쟁로병들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한껏 어리였다.

김송례전쟁로병을 비롯한 10여명의 전쟁로병들은 조순희동무를 가리켜 《우리 딸》이라고 불렀다. 그 부름은 전쟁로병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을 다 바쳐온 조순희동무에 대한 정깊은 부름이였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어느날 조순희동무는 모내기로 들끓는 농장벌을 찾아가는 로병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보게 되였다. 머리에 백발을 얹었건만 화선길을 누비던 병사의 자세로 조국을 위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는 전쟁로병들의 모습이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였다.

조순희동무는 전쟁로병가정방문일지를 만들고 거기에 전쟁로병들의 주소와 생일들을 적었다. 일지에 적혀지는 전쟁로병들의 주소와 생일이 날을 따라 늘어갔다. 명절날과 일요일은 물론 때없이 자주 찾아가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조순희동무의 모습이 전쟁로병들의 눈가에 친딸처럼 정겹게 비끼였다. 전쟁로병들이 들려주는 불타는 락동강과 피묻은 당원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조순희동무는 새 세대의 본분을 다시금 자각했다.

오래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김송례전쟁로병이 대지를 활보하게 되였을

때였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전우들에게 김송례전쟁로병은 자기를 일으켜세우기 위해 조순희동무가 기울인 지성을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조순희동무의 두손을 꼭 잡고 그가 자기를 업고 걸은 밤길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고, 친딸이면 이보다 더하겠는가고 감동깊이 로병들에게 말했다.

조순희동무의 눈가에도, 곁에 서있던 전쟁로병들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올랐다.

조순희동무가 걷는 발걸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지향이 실려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섰다.

언제인가 전쟁로병들의 집에서 돌아오던 길에 곁에서 걸어가는 딸의 모습을 띄여보던 조순희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딸이 이젠 시집갈 나이가 다 되였는데 그를 위해 별로 준비해둔것이 없었던것이다.

조순희동무가 딸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그의 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한생을 어머니처럼 살겠다고 말하였다.

오늘도 조순희동무는 전쟁로병들의 친딸로 살 맹세를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린 편지의 구절구절을 가슴에 새기며 로병들을 위한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조순희동무뿐이 아니다.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걷고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로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전통이며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이다.

2) 서로돕기일지

(1) 가정방문일지

청진화학섬유공장 초급당위원회에는 부피두터운 가정방문일지가 있다. 그 일지에는 공장의 일군들이 종업원의 집에 찾아가 종업원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알고 풀어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공장초급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군중속에 들어가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수 있고 그들이 생활상 애로없이 맡은 일을 잘하게 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는 초급당위원회의 일군들을 발동하여 일을 잘하는 혁신자들은 물론 사업과 생활에서 결함이 있거나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대상들의 가정방문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이 종업원들과 년로보장자들의 가정에 찾아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한 일군이 운수직장에서 일하는 한 로동자의 집을 찾았을 때였다. 그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여러해전에 부모를 잃고 동생과 함께 살고있는 그가 결혼을 앞두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공장에서 그의 결혼상도 차려주며 새살림에 필요한 가정용품들도 해결해줄것을 합의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신랑신부의 첫날옷도 해결해주고 결혼상도 남부럽지 않게 차려주었으며 이불장, 옷장으로부터 그릇과 땔감에 이르기까지 성의껏 마련해주었다.

친혈육의 심정으로 종업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는 당조직의 따뜻한 손길에 의하여 부모를 잃은 여러 청년이 가정을 이루고 안착된 마음으로 맡은 초소를 성실히 지켜나가게 되였다.

한 로동자의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을 깨끗이 꾸려주어 로동자와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등 종업원들에게 웃음과 기쁨, 락관을 안겨주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다.

종업원들을 위한 일군들의 진정이 담겨진 가정방문일지를 리용하며

일군들은 자기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인민관을 비추어보고 멸사복무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결심을 가다듬군 하였다.

일군들은 가정방문을 대중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으로 여기고 종업원들의 가정을 자주 찾았다. 종업원들의 가정을 찾아 그들과 친혈육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 바라는것을 제때에 알아보고 성심성의로 풀어주었다.

이들뿐이 아니다.

한해동안에만도 생일과 명절을 맞는 120여명의 전쟁로병들과 460여명의 영예군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을 축하해준 인민봉사총국 녀맹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 공로자들과 기능공, 종업원들의 가정을 찾아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다.

(2) 종업원생활료해일지

염주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는 종업원생활료해일지가 있다.

공장의 종업원들이 힘을 합쳐 양묘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수지나무모들을 생산할수 있는 형타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성한 어느날 저녁 공장의 일군들은 기쁜 마음으로 마주앉았다.

이날 일군들은 영예군인들에 대한 참다운 전우애를 지니고 종업원들의 건강과 생활을 더 잘 돌봐주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이렇게 되여 생겨나게 된것이 바로 종업원생활료해일지였다.

이 일지에 종업원들의 건강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 그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면서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자는것이였다. 종업원생활료해일지가 두터워지는 과정은 온 공장에 혁명적동지애가 차넘치고 영예군인들의 일터에 대한 애착심이 커가는 과정으로 되였다.

어느날이였다. 작업의 휴식참에 사출작업반의 일터로 초급당일군이

들어섰다.

얼굴에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훔치고있는 작업반의 한 로동자에게로 다가간 일군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돌보며 일하라고 따뜻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온 보자기를 그의 손에 들려주며 건강에 도움이 될것같아 마련한것이니 잊지 말고 꼭 들라고 당부하고 돌아서는것이였다.

보자기를 펼치니 거기에는 귀한 약재를 넣고 만든 닭곰이 든 단지가 들어있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에야 로동자는 그 닭곰이 늘 많은 일감을 걷어안고 바삐 뛰여다니느라 몸이 축간 일군의 몸보신을 위해 가정에서 마련한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러느라니 일군들이 현장에 때없이 찾아와 일손도 함께 놀리며 혁명의 꽃을 변함없이 피워가는 한길에서 우리는 동지이고 전우라고 허물없이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기술혁신사업에 늘 앞장서군 하던 공무작업반장이 공장일군들에게 등을 떠밀리워 휴양소로 가게 되였다. 그런데 그가 집을 나선지 3일째 되는 날 밤에 들이닥친 강한 비바람으로 하여 그의 집지붕이 피해를 받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즉시 그의 집을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조직이 있었다. 그의 집마당으로 세멘트며 새 기와들을 비롯한 자재들이 연방 들어섰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과 헌신에 의하여 단 하루만에 집수리가 말끔히 끝나게 되였다.

휴양을 마치고 돌아와 번듯하게 새로 꾸려진 살림집에 들어서는 작업반장의 심정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제대되여 공장에 배치받은 로동자가 가정을 이룰 때에 결혼상도 성의껏 마련해준 일이며 한 로동자의 자식이 조국보위초소로 떠날 때에는 성

의껏 준비한 기념품을 안겨주며 아버지처럼 군사복무를 잘해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던 이야기 등이 담겨진 종업원생활료해일지의 부피가 두터워질수록 혁신의 새소식, 위훈도 많아졌다.

일터에 차넘치는 열렬한 공장애와 나날이 늘어나는 혁신과 위훈은 종업원들을 참된 혁명동지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바치는 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에 그 뿌리를 두고있었다.

(3) 우리 작업반 자랑일지

단천제련소는 종업원들의 생산열의가 대단히 높은 기업소들중의 하나이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공장의 일군들은 한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작업반들에서는 우리 작업반 자랑일지를 리용하고 모든 직장들에서는 긍정소행자료집을 리용하고있다는것이였다.

작업반들에 있는 우리 작업반 자랑일지의 내용을 함축하여 적어넣은 것이 긍정소행자료집이였다.

긍정소행자료집에 담겨진 하나하나의 소행들은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긍정소행자료집에는 다음의 소행자료들도 있었다.

2019년 1월 중순 어느날 밤 생산현장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발생하였다. 침출탕크의 발브에서 갑자기 침출액이 뿜어져나왔던것이다.

위기일발의 순간 침출액이 뿜어져나오는 발브로 서슴없이 몸을 날린 사람들이 있었다. 운전공들이였다. 그 시각 그들은 한몸을 바쳐서라도 생산이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오직 한생각뿐이였다.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위험은 가셔지게 되였다.

생산의 동음을 조국의 전진발전과 이어놓고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엿보게 하는 소행이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종업원들속에서는 이런 소행도 발휘되였다.

어느한 직장의 종업원들이 집이 제련소와 멀리 떨어져있는 종업원들

에게 자전거를 마련해주었다.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은 너도나도 혁신의 길을 함께 달리면 그만큼 조국의 전진이 빨라질것이라는 자신들의 진정을 말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수시로 종업원들의 가정을 찾아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는것이 직장일군들의 생활로 되고있다는 이야기며 해산을 앞둔 종업원의 안해를 위해 진정을 바친 이야기, 직장종업원의 자식들인 세쌍둥이가 초소에 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자랑을 안고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여올 때 온 직장이 떨쳐나 반갑게 맞이한 사실을 비롯하여 궁정소행자료집에 담겨진 미담들은 참으로 많았다.

작업반과 직장들에서 우리 작업반 자랑일지와 궁정소행자료집을 널리 리용하게 된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었다.

2016년 충성의 200일전투를 마감짓던 날 제련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록장을 덮으며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린 나날이 뜨겁게 되새겨졌던것이다.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도 혁신과 미풍에 대한 기록은 계속 새겨가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제련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이런 마음을 담아 생겨난것이 우리 작업반 자랑일지와 궁정소행자료집이였다.

우리 작업반 자랑일지와 궁정소행자료집과 더불어 집단의 화목과 단합은 더욱 공고화되고 생산에서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4) 우리 인민반일지

평양시 중구역에 살며 인민반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전란옥은 어린이들을 잘 키우려면 어머니자신이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하는것처럼 인민반을

잘 꾸리자면 인민반장이 인민의 충복이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한다는 당의 뜻을 언제나 명심하고있었다.

그는 인민반세대 자녀들의 학과학습정형과 도덕품성에 대하여 늘 관심하며 공부도 잘하고 인사성이 밝으며 좋은일하기에서도 모범인 자녀들을 인민반속보에 큼직하게 써서 자랑하는것을 정상화하였다.

이렇게 하니 부모들속에서 자녀교양에 더욱 관심을 돌리는것이 확연히 알리였고 인민반세대의 자녀들이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일하기와 체력단련에서 모범이 되였다.

이뿐 아니라 인민반에서는 매 세대에서 꽃피는 미담과 자랑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속보에 제꺽제꺽 반영하고있었다.

그리고 표지에 《우리 인민반일지》라고 씌여진 책에 가지가지의 미풍들을 꼭꼭 써넣었다.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을 적극 도와주고있다는 여러 가정세대에 대한 이야기, 인민반의 얼굴이자 자기 집의 얼굴이나 같다며 가정에서 정성들여 키우던 수십개의 화분을 현관앞에 내놓았다는 어느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등 모든 미담과 자랑은 저절로 꽃펴난것이 아니였다. 인민반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인민반장의 말없는 헌신이 이 모든 자랑들에 비껴있음을 일지가 다 말해주고있었다.

일지에는 인민반의 매 가족성원의 이름과 생일은 물론이고 건강상태와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뿐만아니라 어느 집세대주는 지금 중요한 연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으니 그 가정에 좀 더 관심을 돌려야겠다는 내용, 몇층 몇호집 아들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장마다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해 애쓴 전란옥동무의 사색과 노력이 어려오는 일지였다.

일지와 더불어 이웃간의 화목도 더 두터워지고 가정들에 기쁜 일이 많이 생겨났으며 인민반원모두가 친형제로 살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과정에 긍지로운 자랑도 많이 꽃펴났다.

이런 화목한 인민반들이 사회주의사회의 기초를 이루고있어 사회주의

생활이 더욱 아름답고 희망찬것이였다.

* * *

우에 소개한 일지리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공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아름답고 강인한 인민의 나라인 조선의 현실의 일단을 보여주는 몇 안되는 이야기이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 바다물을 다 마셔보아야 짠맛을 안다던가 하는 성구들이 있다.

일지를 품고 충성과 애국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지는 없어도 매일, 매순간 나라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위해주는 사람들은 나라의 그 어디에나 있으며 그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충성스럽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인민을 가진 조선은 재부중의 재부, 억만재부를 가진 위대하고 강위력한 나라이며 충성의 대오, 애국의 대오가 마음과 힘을 합쳐 마련해가는 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